

# 2022학년도 후기

##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연구 계획서 자료집

---

### 석사학위청구논문

- ▣ 사범대학 학생의 임용시험 응시 지역 결정 요인 분석  
김한이 (지도교수:차성현/세부전공:교육행정) ..... 1
  - ▣ 대학생의 평가염려완벽주의와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효과: 실패 반응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최선안 (지도교수:이주미/세부전공:교육심리) ..... 19
  - ▣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이 학습자의 정서적 사용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분석  
XIANG HONGYU (지도교수:류지현/세부전공:교육공학) ..... 32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2022년 10월 07일

---

# 석사학위 청구논문

---

# 사범대학 학생의 임용시험 응시 지역 결정 요인 분석

김 한 이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 지도교수 : 차 성 현)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등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단계의 선발 전형을 거쳐 선발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에서는 공개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임용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제1차 시험,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2차 시험을 모두 치러야 한다. 시험을 모두 통과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교사’라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된다.

그러나 타 직렬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는 다른 임용시험의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직 공무원들은 근무하는 부처가 동일한 경우 본인의 의사 혹은 조직의 인원 수급에 따라 근무 지역 변경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교사들은 신분상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임용 시험에 응시할 당시 선택한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로서만 근무해야 하며, 인사구역 또한 각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으로 제한된다. 조동섭, 안병천(2008)은 교사들이 선호하는 학교 조건과 특성 연구에서 통근 거리, 학교의 규모, 학교 관리자의 특성 등을 제시했는데, 교사들은 이러한 여건이 좋은 대도시에서의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교사들의 시·도 이동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교사들의 대도시 쏠림 현상으로 인해 도(道) 지역 학생들이 우수 교사들에게 수업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고, 교사 수급의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교사 수급을

위해 교사의 시·도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 본인의 희망, 각 시·도교육청의 필요에 따라 타 시·도교육청으로 진출, 혹은 파견, 교환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등의 까다로운 기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매우 제한적이다(박규현, 2016). 즉,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교사 자신이 임용 시험을 응시할 때 선택한 지역에서 퇴직 시까지 근무해야 하며, 이는 곧 교사 개인의 현재, 미래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교사의 이탈은 각 시·도 교육청 중 읍면 단위의 학교를 다수 관할 하고 있는 도(道)지역의 교육청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교사의 정년퇴직, 명예퇴직과 같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결원 외에 ‘의원면직’이라는 돌발적인 결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되는 교사 수 부족,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어려움, 교육청의 교육 정책 집행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교사 이탈로 인해 남아 있는 교사들이 겪는 지역 교육에 대한 사기 및 헌신도 저하, 학부모의 학교, 교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교육 문제에 민감한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도(道)지역에서 광역시 지역으로 유학, 전학시킴으로써 지역의 교육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박남기, 2003). 그러므로 도(道)지역 교육청들은 우수한 인재들의 지원율을 높이고, 우수한 교사를 선발, 채용하며, 교사의 타 지역 이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범대 학생이 임용시험 응시 전부터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시험 응시 지역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새로 입직하게 되는 교사 개인의 성향 및 인식을 고려하여 인사 정책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연구가 될 수 있다.

임용시험 응시 지역 결정과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는 교사들이 타시도로 임용시험을 재응시하는 현상에 편중되어 이루어져 왔다. 교사 개인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조동섭, 안병천, 2008) 근무 지역 변경을 원하는 교사들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임용시험의 재응시이기 때문이다. 김민지(2019)는 현직 교사의 임용 재응시로 인한 타 시·도 진출을 ‘현직교사의 이탈사태’라고 명명하고 전라남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13년~2017년 사이에 매년 평균 100명 정도의 교사가 임용시험 재응시를 통해 의원면직 후 타 시·도로 진출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특히 초등교사의 경우 중등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용시험 경쟁률로 인해 임용시험 재응시 및 타시도 진출과 관련된 문제들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2018)에서는 도(道)단위 지역 교육대학

재학생이 임용시험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역 가산점을 높이고 현직 교사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 현직 교사들의 임용시험 재응시 제한 등의 법적 장치를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 논란의 요소가 많아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초등교사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지역 진출 사례, 이와 관련된 연구가 다소 존재하는 편이다. 그러나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높은 경쟁률로 인해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초등교사에 비해 임용시험을 재응시하여 근무지역을 이동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상대적인 관심이나 정책적 노력,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중등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임용시험 재응시를 통한 지역 이동이 실제 다수가 아닐지라도 이는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양상이기 때문에 초등교사들과 동일한 조건이 형성된다면 중등교사들에게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현직 교사가 재응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근무와 시험 준비를 병행하고 계속해서 시험에 재응시하는 행동이 지속될 경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제도적인 이유 때문에 중등교사들의 반복적 임용시험 재응시와 재응시를 통한 교직 이탈 비율이 낮다는 점은, 그만큼 교직에 입직하기 전,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지역 결정에 대한 다각적 고려를 더 심각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초등교사들에 비해 중등교사의 임용 시험 재응시를 통한 지역 이동이 낮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매년 선발하는 교사의 수, 즉 TO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2018)에 따르면 현재 교사 수는 약 38만명(초등 15만 7천명, 중등 22만 7천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2017년 기준 초등(초등교사 자격증 보유자)은 연 4,148명이 배출되어 평균 경쟁률이 1.2:1을 보이며 수급 불균형이 크지 않지만, 중등(중등교사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연 20,325명이 배출되어 평균 경쟁률이 10.7:1을 보이며 수급 불균형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등의 경우 수급 불균형이 크지는 않지만 지역 불균형이 매우 커서 2015년~2017년 사이에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교육청은 초등 교사 임용 시험에서 필요한 만큼의 교사를 선발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중등 교사의 경우 초등 교사의 수급에 비해 수요보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모든 시·도교육청의 중등 교사 선발시험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초등교사들이 도(道)지역에서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후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광역시, 특별시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처럼 중등교사들이 도(道)지역에서 광역시, 특별시로 이동하려 하는 움직임 역시 선발인원(TO)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중등교사들이 시험 응시 지역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선발인원(시험 합격

가능성)’인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및 근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초등교사의 타시도 전출에 관한 사례연구(김민지, 2019), 특수학급 교사의 타시·도 전출 실태 분석(유호중, 2008), 초등현직교사의 임용시험 채용시 사례분석(박규현, 2016)과 같은 연구들은 적게나마 찾아볼 수 있었지만,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들이 애초에 교육대 학생, 사범대 학생 때부터 어떤 요인들을 고려하여 임용시험 응시지역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중등교사의 경우 초등교사에 비해 채용시를 통한 지역 이동의 기회가 적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자신이 퇴직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더 많은 요인들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범대 학생들의 임용시험 응시 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범대 학생들이 임용 시험 응시 지역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G광역시 소재의 사범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사범대 학생들의 임용 시험 응시 지역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등 교사의 광역시, 특별시 등의 대도시 쏠림으로 인한 지역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각 시·도 교육청의 교사 수급 및 인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사범대 학생들이 교직 입직 전 임용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 지역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범대 학생들의 임용시험 응시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무엇인가?

- 1-1. 학생들의 개인 요인에 따라 임용 시험 응시지역 결정에 차이가 있는가?
- 1-2. 학생들의 가족 요인에 따라 임용 시험 응시지역 결정에 차이가 있는가?
- 1-3. 학생들의 환경 요인에 따라 임용 시험 응시지역 결정에 차이가 있는가?
- 1-4. 학생들의 시험 요인에 따라 임용 시험 응시지역 결정에 차이가 있는가?
- 1-5. 학생들의 학교 요인에 따라 임용 시험 응시지역 결정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임용 시험 응시 지역 결정 결과에 따른 집단 간 요인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중등 교사 이탈의 배경

도(道) 지역 교사의 이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가장 큰 근본 원인은 도(道)와 시(광역시, 특별시) 사이의 순환 근무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박남기, 2018). 지난 1993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1997년 울산광역시까지 각 도(道)에 위치하고 있었던 직할시들이 광역시로 승격되었고, 교육청 역시 각 시·도 교육청으로 분할되어 소속 교사들의 근무 지역 또한 나뉘게 되었다. 시·도간 순환근무가 중단되고 1991학년도 교원 임용 후보자 공개경쟁선발시험(교원 임용 시험)이 시작되면서 사범대학 졸업생들이 임용시험을 볼 때 대도시를 선호하는 동시에 도(道) 지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박남기, 2018).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도시와의 근무 여건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에서의 삶에 익숙한 젊은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읍·면지역, 도서·벽지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박남기, 2018). 또한 도(道) 지역 소규모 학교에서의 근무는 도시에 비해 문화적 격리, 열악한 생활환경,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긴 시간, 출퇴근의 어려움 등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박남기, 2018) 이러한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젊은 교사들의 도(道) 지역 기피 현상은 해결되기 어렵다.

### 2. 중등 교사 임용 시험 현황

박남기(2018)는 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초등 교사 임용 시험의 경쟁률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광역시, 특별시의 평균 경쟁률이 도(道) 지역의 평균 경쟁률보다 다소 높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초등 교사 임용 시험의 경쟁률에서 시·도의 차이는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의 경쟁률에서 시·도의 차이보다 크지 않다. 박남기(2018)의 자료에 따르면 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의 시·도간 경쟁률 격차는 각각 0.41, 0.76, 1.17, 1.18이다. 반면 최근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 중등 교사 임용 시험에서는 초등 교사 임용 시험에 비해 시·도간 경쟁률 격차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경쟁률 하나만 가지고 사범대 학생들의 대도시 선호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모집인원이 도(道) 지역보다 약 2~2.5배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현상은 교육 자원의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표II-1 중등 교사 임용시험 시·도별 경쟁률(2019~2022)>

| 지역      | 2019학년도  |          |       | 2020학년도  |          |       | 2021학년도  |          |       | 2022학년도  |          |       |
|---------|----------|----------|-------|----------|----------|-------|----------|----------|-------|----------|----------|-------|
|         | 모집<br>인원 | 응시<br>인원 | 경쟁률   | 모집<br>인원 | 응시<br>인원 | 경쟁률   | 모집<br>인원 | 응시<br>인원 | 경쟁률   | 모집<br>인원 | 응시<br>인원 | 경쟁률   |
| 서울      | 590      | 6,142    | 10.41 | 661      | 6,153    | 9.31  | 822      | 9,012    | 10.96 | 807      | 10,104   | 12.52 |
| 부산      | 296      | 2,992    | 10.11 | 270      | 2,787    | 10.32 | 293      | 3,092    | 10.55 | 213      | 2,874    | 13.49 |
| 대구      | 139      | 1,126    | 8.10  | 196      | 1,508    | 7.69  | 128      | 1,194    | 9.33  | 137      | 1,556    | 11.36 |
| 인천      | 183      | 1,580    | 8.63  | 313      | 2,192    | 7.00  | 279      | 2,245    | 8.05  | 270      | 2,223    | 8.23  |
| 광주      | 79       | 772      | 9.77  | 89       | 832      | 9.35  | 82       | 890      | 10.85 | 98       | 1,103    | 11.26 |
| 대전      | 112      | 927      | 8.28  | 125      | 1,050    | 8.40  | 191      | 1,525    | 7.98  | 171      | 1,717    | 10.04 |
| 울산      | 160      | 1,287    | 8.04  | 170      | 1,402    | 8.25  | 154      | 1,466    | 9.52  | 91       | 885      | 9.73  |
| 세종      | 105      | 823      | 7.84  | 90       | 820      | 9.11  | 94       | 989      | 10.52 | 95       | 1,090    | 11.47 |
| 시<br>평균 | 1,664    | 15,649   | 9.40  | 1,914    | 16,744   | 8.75  | 2,043    | 20,413   | 9.99  | 1,882    | 21,552   | 11.45 |
| 경기      | 1,536    | 11,902   | 7.75  | 1,552    | 13,111   | 8.45  | 1,340    | 11,979   | 8.94  | 1,388    | 11,610   | 8.36  |
| 강원      | 347      | 2,630    | 7.58  | 300      | 2,570    | 8.57  | 301      | 2,978    | 9.89  | 291      | 2,580    | 8.87  |
| 충북      | 335      | 2,296    | 6.85  | 388      | 1,961    | 5.05  | 267      | 1,607    | 6.02  | 293      | 2,265    | 7.73  |
| 충남      | 464      | 3,130    | 6.75  | 441      | 3,115    | 7.06  | 459      | 3,495    | 7.61  | 424      | 3,537    | 8.34  |
| 전북      | 395      | 2,890    | 7.32  | 382      | 2,999    | 7.85  | 335      | 3,118    | 9.31  | 335      | 3,599    | 10.74 |
| 전남      | 573      | 3,665    | 6.40  | 516      | 3,401    | 6.59  | 442      | 3,328    | 7.53  | 447      | 3,549    | 7.94  |
| 경북      | 316      | 2,643    | 8.36  | 372      | 3,307    | 8.89  | 344      | 3,008    | 8.74  | 249      | 1,915    | 7.69  |
| 경남      | 469      | 3,683    | 7.85  | 432      | 3,495    | 8.09  | 400      | 3,661    | 9.15  | 458      | 4,568    | 9.97  |
| 제주      | 168      | 1,024    | 6.10  | 139      | 1,103    | 7.94  | 147      | 1,116    | 7.59  | 112      | 895      | 7.99  |
| 도<br>평균 | 4,603    | 33,863   | 7.36  | 4,522    | 35,062   | 7.75  | 4,035    | 34,290   | 8.50  | 3,997    | 34,518   | 8.64  |

### 3. 선행 연구 분석

#### 1) 교사의 지역 이동에 관한 연구

교사들이 근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시·도간 1대1 교류, 시·도간 일방전출, 시·도 다자간 교류 등과 같은 제도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1대1 교류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특별한 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실시되는 제도이고, 1대1 교류 역시 교사 개인이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교류할 교사를 개인적으로 찾아야 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역시 시·도간 교류를 통해 이동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인 임용시험 재응시를 경험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다. 또한 중등교사보다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많이 존재한다. 김민지(2019), 박규현(2016) 등 교사의 임용시험 재응시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지역 이동 양상은 도(道) 지역에서 광역시, 특별시로 대표되는 대도시로의 이동이다. 김민지(2019)는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의 초등교사들이 임용시험 재응시를 통해 근무 지역을 변경하는 원인에



대해 생활 근거지로의 귀환, 열악한 업무환경 등의 요인을 제시했다. 많은 교사들이 임용시험 합격을 목적으로 자신의 생활 근거지와 거리가 먼 전라남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를 위해 다시 생활 근거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특성이 강했고, 업무환경 측면에서는 농어촌 학교의 열악한 근무환경, 권위주의적인 교직 문화와 관리자 특성이 있음을 밝혔다(김민지, 2019). 박규현(2016) 역시 현직 초등교사들이 임용시험에 재응시하는 원인으로 근무 지역의 교육환경을 제시했다. 먼저 도(道) 지역의 넓은 관할 구역으로 인해 교사들이 통근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농어촌 학교의 경우 소규모 학교가 많아 교사에게 배정되는 업무량과 수업량이 많아진다는 점, 농어촌이나 지방의 경우 도시에 비해 권위적인 교직 문화가 강하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밝혔다(박규현, 2016). 이처럼 초등교사가 임용시험에 재응시하여 근무 지역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들은 진행되고 있으나 교사의 수급에 있어서 차이가 큰 초등과 중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또한 초등교사들이 임용시험을 재응시하는 원인으로 생활 근거지, 통근의 어려움, 근무 환경, 교직 문화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등교사들이 임용시험을 치를 때 지역을 결정하는 고려 요인으로도 비슷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2) 교사의 지역 쏠림에 관한 연구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임용 시험 재응시 관련 연구에 이어 박남기(2018)는 임용시험을 앞둔 교육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간 교사 쏠림 현상에 대한 교육대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교사 쏠림 현상’이란 도서 벽지 소재 학교에서의 교사 확보 어려움과 현직 교사의 이탈에 관한 현상으로 학교 지역의 특징 및 제반 사항에 따라 발생하는 교사 자원의 불균등한 배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경원, 정성수, 2016). 특별시나 광역시로 대표되는 대도시로 교사들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회균등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박남기, 2018). 학교에 근무를 함과 동시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교사들과 비교했을 때 학교, 교육, 학생에 대한 충실도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동료교사와의 관계 및 학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박남기, 2018).

교사의 대도시 쏠림을 막기 위해 신규 교원들을 도(道) 지역에서 일정 기간동안 강제로 근무하게끔 하는 제도들도 존재한다. 일부 지방 교육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해당 소재지역에서 일정 기간동안 의무 근무할 것을 명시하는 제도(예: 광주교육대학교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나 중등 교원 선발 당시부터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구분된 도서, 벽지 학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하는 전형을 만들어 해당 전형에 지원하는 교사들을 따로 뽑는 방식(예: 전라남도교육청 도서지역 구분모집)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에 해당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지리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는 높은 학력의 우수 인력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는 경향을 보인다(문남철, 2010).

고학력의 전문인적자본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잔류하지 않고 수도권 집중과 같이 불균등하게 이동할 경우 지역간의 산업, 문화, 경제적 발전 격차가 벌어지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Fassmaan, Hintermann, 1997). 이는 각 지역의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높은 경쟁률이라는 요건으로 인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유능한 교사이고, 도(道)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유능하지 않은 교사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교사의 유능성을 판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도 없다. 그러나 도(道)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교사들의 심리는 타 직종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질적 하락, 지역 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이 초등교사들의 지역 이동 또는 지역 이동 쏠림에 대한 연구는 다소 존재한다. 타 직종에서는 취업을 앞둔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병원 특성, 지역 특성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존재한다(김은영, 조현하, 2018; 유선주, 김종경, 정면숙, 김세영, 김은경, 2018). 그러나 중등교사 또는 중등교사로 입직하기 전인 사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도(道) 지역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초·중등을 막론한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등교사를 희망하는 사범대 학생들의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3) 분석 변수 설명

#### (1)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사범대 학생들이 임용시험 응시지역을 도(道) 지역으로 결정하는 지의 여부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미 임용시험에 합격한 교사가 임용시험에 재응시하여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 대부분이 도(道) 지역을 떠나 광역시나 특별시로 이동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용시험 응시지역으로 도(道) 지역 교육청을 선택하는 경우는 0,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1로 더미 코딩할 계획이다.

## (2) 독립변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독립변인을 설정하였다. 개인 요인으로 성별, 연고지를 설정하고, 가족 요인으로 부모의 성취압력,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모의 진로영향력을 설정했다. 환경 요인으로 동료의 진로영향력, 지역 선호도를 설정했고, 시험 요인으로 최근 지역별 교원 선발 인원(TO)을 설정하였다. 학교 요인으로는 출신 대학교의 소재 지역, 학과만족도, 직전 학기 성적 등을 설정하였다.

### ① 성별, 연고지

개인 요인에 해당하는 성별과 연고지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취업 시 지역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국내 연구(홍성우, 2016; 문영만, 홍장표, 2017)들에서는 여성들이 취업 시 지역 이동을 적게 하고 출신 지역에 잔류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학력 여성의 경우 고학력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지역이 제공하는 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어 대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국내 연구 결과(정재현 외, 2019)도 존재한다. 여성들의 도시 선호로 인해 남성보다 취업 시 지역이동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외의 연구결과(Faggian, Sheppard, 2007) 또한 존재한다.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범대생들 역시 고학력의 직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성별과 연고지는 지역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 ② 부모의 성취압력

가족요인 중 부모의 성취압력과 경제적 지원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자녀의 취업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부모의 성취압력이란 자녀의 학업적, 사회적 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 관심 등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심리적 압력을 의미한다(박영신, 김의철, 2003). 신동우, 유계숙(2012)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높은 성취압력과 진로기대는 대학생 자녀의 취업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취업을 앞둔 대학생 자녀에게 있어 부모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이 되기 때문에 높은 취업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지근, 김나래(2020)의 연구에서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를 매개하여 취업 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해 보았을 때 임용 시험을 앞둔 사범대 학생들의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 높은 성취 압력을 가하고 있을 경우 사범대 학생들은 평소 마음속으로 염두에 두었던 지역이 아니라 취업 스트레스 해소와 부모의 성취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역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 ③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 또한 사범대 학생인 자녀의 임용 시험 응시 지역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학생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대학생 자녀가 사용한 돈의 총액에서 부모가 지원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곽윤영, 정문자, 2010). 과거와 달리 교육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 부모로부터의 독립 시기가 늦춰졌고, 대부분의 청년 취업 준비생들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독립 준비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곽윤영, 정문자, 2010).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양상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일부 부모들은 자녀에게 생활비, 학습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녀의 학교생활,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등에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곽윤영, 정문자, 2010). 이러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결부된 압박 역시 부모의 양육 태도의 일종이며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은 경제적 자립도로 설명할 수 있다. 부모의 강압적 양육 태도와 자녀의 낮은 경제적 자립도는 자녀로 하여금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 수 있다. 취업 준비생인 사범대생들이 자기 스스로 경제적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임용시험 응시지역 결정과 같은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실시할 때에도 부모의 동의보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확률이 높다(곽윤영, 정문자, 2010). 윤주영(2015)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대학생 자녀의 취업 양상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윤주영(2015)은 부모에 대한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에 따라 연구 대상자들을 ‘의존집단’, ‘완전자립 집단’, ‘부분자립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특성과 취업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그 결과 의존집단의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준비에 열중할 수 있다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부모의 투자와 성취라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들이 직업적 성공을 거둬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낄 수 있음을 지적했다(윤주영, 2015). 한편 완전자립 집단의 경우 일과 학업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취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제시했다(윤주영, 2015).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할 때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사범대생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 혹은 부모의 강력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 ④ 진로영향력

전하람, 김경근(2006)은 의미있는 타인에 의해 개인의 교육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같은 개인에게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각 개인의 행동과 인식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Picou, Carter, 1976).

특히 가족이 개인의 진로행동에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 가족은 일종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구성원은 상호작용하며 가족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관계적 양상은 개인의 진로행동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된다는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Carr, 2000; Bratcher, 1982; 김완석, 박종원, 2013). 특히 Fouad(2007)는 가족 중에서도 부모의 영향력이 개인의 진로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는 문화권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적 문화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의미 있는 타인들 중 부모, 교사에 비해 친구의 역할은 교육포부보다는 직업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Haller, Butterworth, 1960), 친구의 영향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연구결과 역시 존재한다(Spencer, 1976). 그러나 Picou와 Carter(1976)는 친구들의 역할모델 효과가 광범위하게 관찰되며 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했다. 대학생들 또한 넓은 의미의 청소년이고,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고등학생과 차별성이 있는 성인이긴 하지만 대학생들에게도 이러한 논리를 확대 적용해 볼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친구들과의 협업, 대화, 교류를 통해 대학 진학 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상은, 서봉언, 2017). 대학에서의 사범대생들 또한 동료들과의 교류, 먼저 교직에 입직한 선,후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취업 포부에 관한 영향 뿐만 아니라, 임용시험 응시 지역 결정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지역 선호도

다음은 환경 요인 중 지역 선호도이다. 이는 임용 시험 응시 지역에 대한 사범대 학생들의 인식 및 기대에 해당하는 변인이다. 사범대 학생들이 임용 시험에 응시하려는 지역이 자신이 살아왔던 고향이든, 생소한 지역이든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확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비 교사 자신이 평소에 갖고 있던 지역의 이미지 및 지역의 환경이 임용시험 응시지역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Adams, Dollard, Hollins, Petkov(2005)는 지방에서 취업을 하고 생활하는 학생들의 태도 측정에 관한 연구에서 지방이 학생들에게 주는 고립감과 뒤쳐지는 사회화가

지방 생활을 결정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Schofield et al.(2007)이 수행한 보건 간호 인력이 지방 근무를 결정하는 기준 탐색 연구에서 또한 지역 선호도 및 지역의 배경에 관한 요인이 유의한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을 주장했다.

#### ⑥ 최근 지역별 교원 선발 인원(TO)

최근 지역별 교원 선발 인원(TO)은 사범대생들이 임용시험 응시 지역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일 수 있다. 김민지(2019)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초등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선발 인원이 많고, 광역시에 비해 임용 시험의 경쟁률이 덜해 합격 가능성이 높은 도(道) 지역으로 시험을 응시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박규현(2016)의 연구에서도 임용시험의 경쟁률과 선발 인원수에 따라 지역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초등의 경우 중등에 비해 선발 인원수에 여유가 있어 일단 임용시험에 합격 후 타 지역에 재응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자신이 지역가산점 등을 활용해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 응시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 교원 선발 인원은 사범대생들의 응시 지역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선행연구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 ⑦ 출신 대학의 소재지역

학교요인으로서는 출신 대학교의 소재 지역, 학과만족도, 직전학기 성적을 설정하였다. 먼저 학교의 소재 지역은 개인 요인의 연고지와 유사한 변인이나, 개인 요인의 연고지는 예비 교사 자신의 본가가 위치한 고향을 의미하며, 연고지와 대학의 소재지역을 독립변인으로 분리한 이유는 예비 교사가 임용 시험 응시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최종적으로 수학했던 지역과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 중 어떤 요인이 응시 지역을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문남철(2010)에서는 대학 졸업자와 지역간 취업 이동 양상을 출신지(고등학교 졸업 지역;A), 학업지(대학 소재 지역;B), 취업지(직장 소재 지역;C)의 변화 양상에 따라 역내 완결형(A→A→A), 잔류형(A→B→B), 유턴형(A→B→A), 유출형(B→B→A)으로 구분했는데, 본 연구에서 역시 개인 요인의 연고지(A), 학교요인의 학업지(B), 임용 시험 응시 지역의 취업지(C)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⑧ 학과만족도

학과만족도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변인이다. 김계현, 하혜숙(2000)은 학과만족도가 학생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포부와 기준을 설정하는 판단척도라고 주장했으며, 한수정(2013)은 학생의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분명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태도가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했을 때 사범대생들의 학과만족도가 향후 교사로서의 가치관, 계획, 임용시험에 대한 의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생각되어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 ⑨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성적 또한 사범대생의 임용 시험 응시 지역 결정을 예측하는 데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은영, 조현하(2018)는 연구를 통해서 취업 준비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연고지역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고, 유선주 등(2018)에서 역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지역 결정과 취업의 폭이 넓은 의료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범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적용할 계획이다.

<표III-1 변수설명>

| 변수       |             | 측정문항                                                                                     |
|----------|-------------|------------------------------------------------------------------------------------------|
| 종속<br>변수 | 임용 시험 응시 지역 | 임용 시험 응시 지역(도(道) 지역=0, 대도시=1)                                                            |
| 독립<br>변수 | 개인<br>요인    | 성별<br>응답 대상자의 성별(여학생=0, 남학생=1)                                                           |
|          |             | 연고지<br>응답자의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역                                                                 |
|          | 가족<br>요인    | 부모의 성취압력<br>강영철(2003) ‘부모의 성취 압력에 대한 태도 척도’, 15문항, Likert 5점 척도                          |
|          |             | 부모의 경제적지원<br>윤주영(2015) (의존집단=0, 완전자립집단=1, 부분자립집단=2)                                      |
|          |             | 부모의 진로영향력<br>부모가 응답 대상자에게 미치는 진로 영향력(Likert 5점 척도)                                       |
|          | 환경<br>요인    | 동료의 진로영향력<br>동료가 응답 대상자에게 미치는 진로 영향력(Likert 5점 척도)                                       |
|          |             | 지역선호도<br>Schofield 등(2007) ‘Careers in rural health track-ing survey’ 11문항, Likert 5점 척도 |
|          | 시험<br>요인    | 최근 지역별 교원<br>선발 인원(TO)<br>선발 인원이 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 Likert 5점 척도                             |
|          | 학교          | 출신 대학의<br>응답자의 출신 대학 소재지역                                                                |

|  |    |         |                                             |
|--|----|---------|---------------------------------------------|
|  | 요인 | 소재지역    |                                             |
|  |    | 학과 만족도  | 김계현, 하혜숙(2000 ‘과목 관심’ 척도, 7문항, Likert 5점 척도 |
|  |    | 직전학기 성적 | 응답자의 직전학기 성적                                |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으로는 G광역시 소재한 A대학교와 B대학교의 사범대학 3학년,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사범대 학생들이 교직 입직 전 임용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 지역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인데, 현직 교사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임용 시험 응시 전의 상황을 반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보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범대 재학생들은 임용 시험에 응시 하기 직전인 현재 상황에 대해 연구대상자 자신들의 생각을 즉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 목적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사범대학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이 교생실습을 경험한 직후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원 임용시험과 교직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가장 깊을 시기이며, 임용시험에 대한 열망도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4학년 학생들 또한 졸업과 임용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임용시험 응시 지역 결정에 대한 시의성이 가장 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사범대 3학년, 4학년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2. 자료 수집

연구 주제와 방법을 고려해 자료 수집 방법은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진행하고자 한다. 설문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기간은 2022.11.~2022.12. 총 2개월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대상자가 사범대 3학년~4학년들을 표집하여 동의를 얻은 후 종이 설문지를 배부하고 현장에서 회수할 계획이다. 연구 대상자들은 총 1회의 설문지에 대해 약 10분간 응답하게 할 것이다.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범대 학생의 임용 시험 응시 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후술한 종속변인(임용시험 응시지역으로 도(道) 지역 선택 여부)과 독립변인인 개인 요인(성별, 연고지), 가족 요인(부모의 성취압력,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모의 진로영향력), 환경 요인(동료의 진로영향력, 지역 선호도), 시험 요인(최근 지역별 교원 선발 인원(TO), 학교 요인(출신 대학의 소재지, 직전 학기 성적)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하여 설문지를 제작할 계획이다.



### 3. 분석 방법 및 모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범대 학생들이 임용시험을 응시할 때 도(道)지역 응시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 변수이다. 이에 사범대 학생들이 임용시험 응시 지역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할 예정이다. 회귀분석이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을 말한다. 특히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두 가지로 나뉘는 이분형 변수일 때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설명변수가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확률이 1일 경우를 승산(odds)으로 표현한다. 즉, 승산은 종속변수가 나타내는 사건을 설명변수가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에 대한 비율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사범대생들이 임용시험 응시 지역을 결정하는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수의 설명력 즉, 승산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식과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ln\left(\frac{p_i(Y_i = 1)}{1 - p_i(Y_i = 1)}\right) = \beta_0 + \beta_1 P_i + \beta_2 F_i + \beta_3 E_i + \beta_4 T_i + \beta_5 S_i + \varepsilon$$

Y는 사범대 학생이 임용 시험 응시 지역을 결정할 때 도(道) 지역에 응시하는지의 여부

P는 개인 요인에 해당하는 투입변수(성별, 연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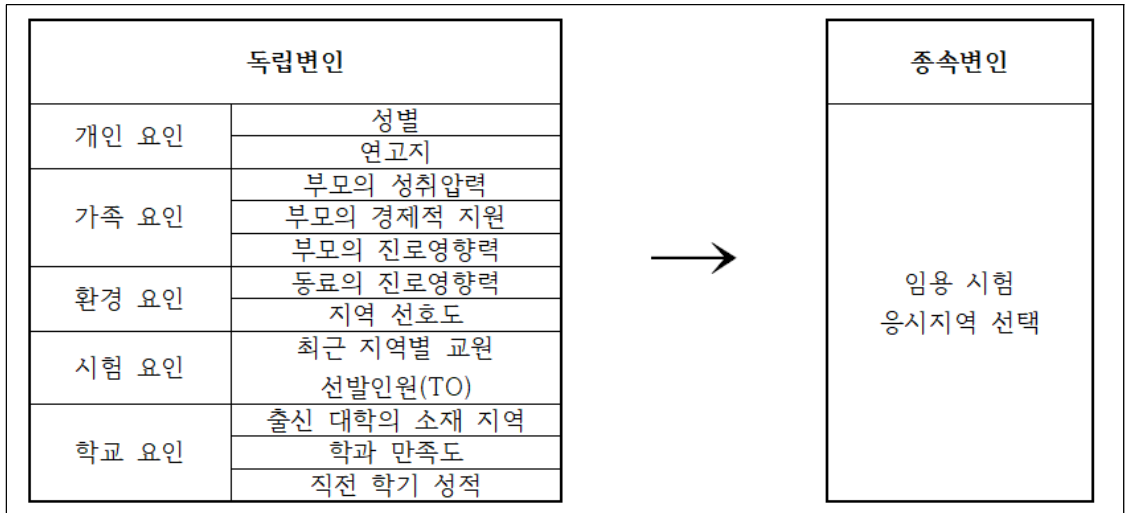
F는 가족 요인에 해당하는 투입변수(부모의 성취압력,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모의 진로영향력)

E는 환경 요인에 해당하는 투입변수(동료의 진로영향력, 지역 선호도)

T는 시험 요인에 해당하는 투입변수(최근 지역별 교원 선발인원(TO))

S는 학교 요인에 해당하는 투입변수(출신 대학의 소재 지역, 학과 만족도, 직전 학기 성적)

|  |
|--|
|  |
|--|



[그림 1] 연구 모형

#### 4. 예상되는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이미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하고 있는 도(道) 지역의 교사들이 임용시험 재응시를 통해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으로 근무지역을 옮겨가는 교사 이탈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으로부터 시작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현직 교사의 임용시험 재응시로 인한 근무 지역 이동은 교사로 새롭게 입직할 사범대생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할 수 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 수급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권을 박탈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사범대생이 교사로 입직 후 퇴직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교직 생활의 전 기간을 보내야 할 지역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떤 부분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을 하는지 파악하여 교원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더불어 김민지(2019)는 현직 초등교원이 임용시험 재응시를 통해 지역을 이동하는 것이 동료 교사, 학교, 학생, 학부모의 교육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현직 교원 뿐만 아니라 미래에 교육 현장으로 진입할 사범대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직무 요인들을 데이터를 통해 증명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이 교원들의 이탈을 막고, 교육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8).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안).
- 곽윤영, 정문자(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3), 121-141.
- 김경원, 정성수(2016). 초등 신규교사 배치로 살펴 본 교사쏠림 현황과 특성. **한국교원교육연구**, 33(3), 68-86.
- 김계현, 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 만족의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1), 7-20.
- 김민지(2019). **전남 초등교사의 임용시험 재응시를 통한 타시도 진출에 관한 사례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정책전공 석사학위 논문.
- 김은영, 조현하(2018). 일부 지역대학 간호졸업생의 지역병원 선택 실태 및 영향요인. **간호행정학회지**, 24(3), 202-210.
- 김완석, 박종원(2013). 대학생의 가족영향력과 진로포부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진로교육연구**, 26(1), 203-229.
- 김지근, 김나래(2020). 부모의 성취압력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의 두려움과 진로정체감의 이중 매개효과. **인간이해**, 41(1), 49-66.
- 문남철(2010). 대학 졸업자의 지역간 취업이동과 지역발전. **국토지리학회지**, 44(4), 581-593.
- 문영만 · 홍장표(2017). 청년층의 노동시장 격차 및 지역인재 유출요인. **지역사회연구**, 25(2), 165-187.
- 박규현(2016). **초등현직교사의 교사임용시험 재응시 사례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초등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 논문.
- 박남기(2003). 지역 초·중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교육 및 임용 정책 방향. **지방교육경영**, 8, 51-68.
- 박남기(2018). 지역 간 교사 쏠림 완화 방안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의 인식. **한국교원교육연구**, 35(1), 1-27.
- 박상은, 서봉언(2017). 지방 고등학생의 대학진학 포부에 있어 지역선택 결정요인 : 가정배경과 학교의 영향력. **교육사회학연구**, 27(3), 29-56.
- 박영신, 김의철(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유선주, 김종경, 정면숙, 김세영, 김은경(2018). 간호대학생의 취업 지역 선택 영향 요인. **대한임상간호학회지**, 18(4), 184-193.
- 유호종(2008). **강원도 특수학교(급) 교사의 타 시·도 진출 실태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 정재현, 동진우, 김기승(2019). 고학력 노동자의 지역 이동에 관한 실증연구 : 비수도권 인재유출을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25(4), 55-78.
- 전하람, 김경근(2006). 고등학생의 교육포부 결정요인 분석 :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을

-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6(4), 185-206.
- 조동섭, 안병천(2008). 교사들이 선호하는 학교의 조건과 특성. **초등교육연구**, 21(1), 371-386.
- 차성현, 엄문영, 민병철(2014). 대학원 진학 결정의 영향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3(2), 209-223.
- 한수정(2013).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25(5), 559-566.
- 홍성우(2016). 광주지역 대졸인력 유출현황과 요인분석. **지역개발연구**, 48(1), 1-23.
- Carr, A. (2000). Evidence based practice in family therapy and systemic consultation: Child focused problems. *Journal of Family therapy*, 22(1), 29-60.
- Schofield, D., Fuller, J., Fletcher, S., Birden, H., Page, S., Kostal, K., ... & Schultz, L. (2007). Decision criteria in health professionals choosing a rural practice setting: development of the Careers in Rural Health Tracking Survey (CIRHTS). *Rural and Remote Health*, 7(3), 1-16.
- Faggian, A., McCann, P., & Sheppard, S. (2007). Some evidence that women are more mobile than men: Gender differences in UK graduate migration behavior. *Journal of Regional Science*, 47(3), 517-539.
- Fassmann, H., & Hintermann, C. (1997). *Migrationspotential Ostmitteleuropa: Struktur und Motivation potentieller Migranten aus Polen, der Slowakei, Tschechien und Ungar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 Fouad, N. A.(2007). Work and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543-564.
- Haller, A. O., & Butterworth, C. E. (1960). Peer influences on levels of occupational and educational aspiration. *Social Forces*, 289-295.
- Adams, M. E., Dollard, J., Hollins, J., & Petkov, J. (2005).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measuring student attitudes to working and living in rural areas. *Rural and Remote Health*, 5(1), 1-10.
- Picou, J. S., & Carter, T. M. (1976). Significant-other influence and aspirations. *Sociology of Education*, 12-22.
- Spencer, W. A. (1976). Interpersonal influences on educational aspirations: A cross-cultural analysis. *Sociology of Education*, 41-46.

# 대학생의 평가염려완벽주의와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효과: 실패 반응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최 선 안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 지도교수 : 이 주 미)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결정해야 할 때, 몇 시간 후 혹은 내일로 미루는 행동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연행동은 시간을 지키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등의 심리적 불편함을 경험할 때 나타난다(류지연, 2002). 또한, 지연행동은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지만, 개인이 적응해야 하는 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이수민, 양난미, 2011). 지연행동과 관련한 연구(Solomon & Rothblum, 1984)에 의하면, 지연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행동·인지·정서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된다고 하였다. 즉, 현대사회의 성취지향적 분위기로 인해 사회가 부과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김민선 등, 2009).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교사와 부모로 인해 수동적인 학교생활을 하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출석과 과제 등을 자율적으로 해야하고, 독립성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임소영, 2009). 수동적인 학교생활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의 변화는 지연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20대의 지연행동 점수가 다른 나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cCown & Robert, 1994).

대학생들의 지연행동은 대학생활적응과 실패경험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과 관련이 있고(이수민, 양난미, 2011), 지연행동이 학교생활과 학업에서 나타나는 것을 학업지연행동이라고 한다(Ferrari, 2001). 학업지연행동은 학업과 관련된

과제나 혹은 시험기간에 시험공부를 시작할 때, 과제를 완성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시험공부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의미한다(Lay, 1986).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실패공포, 과제혐오, 자기효능감, 완벽주의 등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되었으며(Steel, 2007), 이 중 다수의 연구에서 완벽주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김민선 등, 2007; 이미라, 오경자, 2009), 완벽주의 함께 실패공포가 연구되고 있다(한영숙, 2011). 완벽주의는 현재 상황에 필요한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고 엄격한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성향을 의미하며(Frost, Martin, Lahart & Rosenblate, 1990), 이 연구에서는 수행에 대한 의심과 실수에 대한 걱정의 의미를 지닌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보고자 한다.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자신을 감시하고, 타인의 기대나 비판을 습관적으로 걱정하며, 성공적인 수행에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현희, 김창대, 2011).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는 자신에 대한 평가는 의미가 없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잘 펼치지 못한다(이성원, 양난미, 2015).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선행연구를 보면, 완벽주의는 학업지연행동,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실패공포와 정적인 상관관이 있으며(Forst et al., 1990), 학업지연행동을 하는 원인은 개인의 능력부족이 아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회피가 원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실패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학업지연행동을 하게 된다(Birney, Burdick & Teevan, 1969).

Conroy(2001)는 실패공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당황, 자기 가치의 평가하락, 타인의 무관심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였다. 특히, 학업지연행동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주요 원인으로 보았고(Burka & Yuen, 1983), 실패공포가 높은 학습자들은 과제 마감시간이 다가오면서 걱정과 불안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학습지연행동을 하게 되고, 불안이 감소되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학습지연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Rothblum, 1990).

이와 함께 학업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자기효능감이 있고(Steel, 2007), 학업 측면에서는 학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성취를 위해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Bandura, 1977)으로 정의되고 있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선행연구에서 지연행동은 자기효능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Steel, 200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보다 지연행동 빈도가 높게 나타남을 보고한

연구(강은주, 2006)와 학업지연행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부적상관이 있다고 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Schraw & Wadkins, 2007; Rabin, Fogel & Nutter-Upham, 2011). 이를 바탕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실패는 일반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여겨지고 있고, 정서적인 측면으로는 죄책감,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Mcgergor & Eliot, 2005).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실패가 반복되면 다시 도전하고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지고,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등의 경향(Shephred, 2003)을 보인다. 하지만,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서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하며 이는 실패의 다른 측면을 바라본 결과이다(Stenberg, 2001). 학습자에 따라 실패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실패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달라진다(McGrath, 1999). 즉, 다시 도전하더라도 성공한다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실패 후에도 도전을 포기하기 쉽지만, 실패 경험에도 불구하고 성공한다는 믿음과 신념이 있다면 도전을 지속하게 된다(Zimmerman & Bandura, 1994).

실패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본 연구(진예민, 배유진, 양수진, 2021)에 의하면,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극복하고, 성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경험이 개인의 성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인 실패 마인드셋과 내적 탄력성인 실패내성을 포함한 실패 반응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실패내성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고, 실패를 경험한 후에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실패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영희, 강혜원, 2007). 이처럼 학업지연행동은 개인의 성향과 실패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 학습자가 성장할 수 있는지 바라보는 연구는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대학생은 자유를 만끽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욕구(Arnett, 2000)가 있으므로 능동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현재 채용의 압박과 학업 부담 등의 상황으로 인해 실패 가능성을 더 크게 짊어지고 있는 시기이므로 실패를 경험하게 될지라도 개인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다음 도전을 위해 실패경험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진예민, 배유진, 양수진, 2021).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평가염려완벽주의와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평가염려완벽주의와 실패공포 관계에서 실패반응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따라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실패에 대한 건설적인 마음가짐을 지니게 하여,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학업지연행동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학습에 효과적인 행동을 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평가염려완벽주의는 실패공포를 매개로 하여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에서 실패 반응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조절하는가?

셋째, 대학생의 평가염려완벽주의가 실패공포를 매개로 하여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실패 반응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의해 조절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평가염려완벽주의

평가염려완벽주의(evaluative concerns perfectionism)는 타인들로부터 압박감을 지각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확신과 칭찬을 받으려는 희망에 의해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Dunkley & Blankstein, 2000). 평가염려완벽주의는 완벽주의에 대해 살펴본 연구(Flett & Hewitt, 2002)에 의하면, 평가상황에서 성취와 만족을 경험하고, 평가결과에 맞게 상황을 다시 재수정하는 태도를 지닌 적응적인 완벽주의와는 다르게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는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염려를 하고, 비판적으로 자기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평가염려 완벽주의라고 명명하였고, 이들이 지닌 특징으로는 자신이 과제를 수행했던 행동들에 대해 의심하고, 지나치게 실수를 걱정하고 타인이 자신들을 매우 비판할 것이라고 믿는다(김해선, 2016). 결국, 평가염려완벽주의 경향이 강한 학습자는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므로 완벽한 수행을 해야 한다는 동기를 지니고 있지만, 자신이 진행한 과제나 학습 과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이는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장애경, 이지연, 2011). 이처럼 평가염려완벽주의는 우울, 불안, 동기 저하 등의 부정적인 정서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연구(박혜령, 이종선, 2017)를 바탕으로 하여 실패공포를 유발하는 요인(Conroy, 2001)으로 살펴보고 있고, 평가염려완벽주의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 2. 실패공포

실패공포(fear of failure)는 실패자체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실패로 인하여 자신에게 뒤따르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Birney, Burdick, & Teevan, 1969). 또한 실패로 인해 자기가치가 감소하고, 투여했던 시간과 노력을 낭비했다고 생각했을 때 발생하며, 타인이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된다(김현홍, 김진강, 2019). 실패공포가 높은 학습자는 과제 마감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걱정과 불안, 초조함을 경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학업지연행동을 하며 불안한 자극을 회피하고 불안이 감소된다(Solomon & Rothblum, 1984). 또한, 실패공포를 많이 느낄수록 실패에 대한 높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에 다른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이는 실패를 긍정적으로 못하게 된다(오수진, 안주현, 양수진, 2022).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불안이 감소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지연행동이 증가하게 된다.

## 3. 학업지연 행동

학업지연 행동(academic procrastination)은 완성을 해야 할 과제를 나중에 미루는 경향과 불편을 경험하는 순간까지 과제를 불필요하게 미루는 행동(Lay, 1986; Solomon & Rothblum, 1984)으로 정의되고 있다. 학업지연행동은 학업 장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대학생의 학업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관한 연구 (임소영, 2009)에 의하면, 대학생이 되어 처음 갖게 되는 학업에서의 자율성이 혼란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지연행동을 많이 보이는 학습자는 자기비난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학업성적이 저조하거나 대인관계에 문제를 보일 수도 있다(Burka & Yuen, 1983). 따라서 학업지연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재 변인들이 필요하고, 지연행동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학업지연행동의 원인을 예측했던 완벽주의 성향(이미라, 오경자, 2009)과 실패공포(한영숙, 2011)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 4. 실패 반응성

### 1) 실패 마인드셋

Dweck(2002)이 제시한 마인드셋을 기반으로 발전한 개념으로, 실패 마인드셋(failure mindset)은 실패가 자신에게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

경험을 통해 한층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을 지닌 학습자는 개인의 학습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퇴보적 실패 마인드셋을 지닌다면 실패상황을 부정적인 영향만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므로 실패를 피해야 하는 것으로만 여겨지게 된다(정지유, 김한샘, 양수진, 2022).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에 관한 연구(안태영, 2020)에 의하면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을 지닌 학습자는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좌절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는 것보다, 자신에게 배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실패에 대한 자신의 신념은 실패를 하며 경험하게 되는 자신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지유, 김한샘, 양수진, 2022; 안태영, 2020). 또한, 성장적 실패 마인드셋은 실패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관한 대처방식인 학업적 실패내성과 관련이 있다(진예민, 배유진, 양수진, 2021).

## 2) 학업적 실패내성

학업적 실패내성(academic failure tolerance)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과 관련한 실패 결과를 건설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 Clifford, 1988). 학업적 실패내성은 감정과 행동, 과제수준선호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은 학습자가 실패경험 후에 보여지는 감정적 반응을 의미한다(김아영, 1997). 행동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방안들을 고려하는 인지적 측면과 함께 실패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적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과제수준선호는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자신의 학업을 위해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오수진, 안주현, 양수진, 2022).

학업적 실패내성과 관련한 선행연구(김은하, 신종호, 2018)에 의하면, 학업적 실패내성은 학습자가 학업에 어려움을 마주한 상황(성적하락, 보고서 작성 어려움 등)에서 바람직한 성공 경험을 얻기 위해 학습자가 취하는 태도라고 하였다. 실제로, 자신의 학업 실패 결과에 따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도전했던 분야에 대해 능력 향상 및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박유나, 박민구, 2015). 따라서 학업적 실패내성을 높여주는 것은 단지 높은 학업성취도를 얻기 위한 것뿐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실패경험을 통해 배움의 과정(김은하, 신종호, 2018)으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패 반응성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대학생의 실패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진예민, 배유진, 양수진, 2021)을 바탕으로 실패 마인드셋과 학업적 실패내성을 실패 반응성으로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 5.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학습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활동에 대해 자신이 적절하게 조절하며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Bong & Skaalvik, 2003), 수업에 대한 집중도와 참여도, 교과에 대한 흥미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경희, 김지연, 2014). 그리하여 학업에 관한 개인의 긍정적인 신념은 학업노력을 증가하게 하고,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winton, 2010).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가 있으며, 자신감은 자신이 학습을 임할 때의 확신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고, 자기조절 효능감은 자기조절(자기관찰, 자기판단 등)과 같은 부분을 활용하여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기대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과제난이도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들을 의미한다(김아영, 박인영, 2001). 이러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상황에 관련된 동기·인지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며 학습자의 수행과 성취에 영향을 미치므로, 과제 해결 상황에서 완벽주의 성향을 완화시켜 학업지연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현진, 2013)를 바탕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실패반응성과 함께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대학생의 평가염려완벽주의와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효과에서 실패반응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IRB(생명심의관리위원회)승인을 받은 뒤, 광주에 소재한 C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다.

### 2. 측정도구

#### 1) 평가염려완벽주의 척도

평가염려완벽주의는 Frost 등(1990)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하위요인인 ‘수행에 대한 의심’과 ‘실수에 대한 염려’를 사용하였다. 수행에 대한 의심 문항은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문항으로는 “무슨일이든지 내 마음에 들게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린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수에 대한 염려 문항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시문항으로는 “부분적인 실패도 나에게는 완전한 실패와 다름없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은 5점(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로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 2) 실패공포 척도

실패공포 척도는 Conroy 등(2002)이 개발한 실패 공포 척도를 임성문(2006)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 척도는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은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5문항으로 예시문항은 “내가 어떤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그것은 내게 중요한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이다. 다음 하위요인은 자신이 평가 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 5문항으로 예시문항은 “내가 어떤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을 망쳐버리고 있다.”이다. 다음 하위요인은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한 공포 5문항으로 예시문항은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관심을 덜 갖는다.”이다. 다음 하위요인은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5문항으로 예시문항은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의 가치가 감소한다.”이다. 다음 하위요인은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 5문항으로 예시문항은 “내가 어떤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된다.”이다. 문항들은 5점(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 3) 학업지연행동 척도

학업지연행동 척도는 허효선(2012)이 개발한 학업적 착수-완수 지연척도를 사용한다. 본 척도는 18문항으로 2개의 하위요인이 있다. 학업적 착수지연 하위요인은 학업을 시작하는 것을 계속 미루는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11문항이 있다. 예시문항은 “과제를 늦게 시작하는 습관을 고치려고 해도 잘 안된다.”이다. 학업적 완수지연 하위요인은 학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미루는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7문항이 있다. 예시문항은 “과제를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교수님께 제출일을 늦춰주셨으면 하고 바란다.”이다. 문항들은 5점(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 4) 실패 마인드셋 척도

실패 마인드셋 척도는 Haimovitz와 Dweck(2016)이 개발한 실패마인드셋 척도를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박서단(2020)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예시문항은 “실패 경험은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든다.”이다. 문항들은 5점(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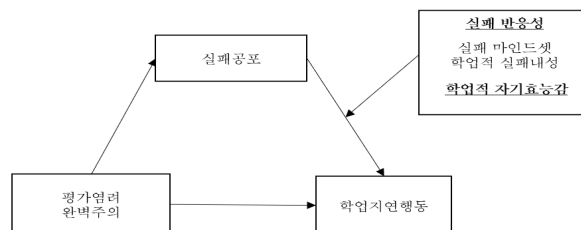
### 5)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는 김아영(2002)이 한국에 맞게 표준화한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를 사용한다.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8문항이다. 감정 하위요인은 총 6문항으로 예시문항은 “학교에서 실수를 많이 하면 매우 우울해지거나 화가난다.”이다. 행동 하위요인은 총 6문항으로 예시문항은 “학교시험에서 나쁜 결과를 얻으면 틀린 것은 공부해서 다시 풀어본다.”이다. 과제수준선택 하위문항은 총 6문항으로 예시문항은 “좀 틀리더라도 어려운 과제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이다. 문항들은 6점(1점=전혀 그렇지 않다 ~ 6점=매우 그렇다)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 6)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척도로는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3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8문항이다. 과제난이도 선호는 10문항으로 예시문항은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이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10문항으로 예시문항은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소가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이다. 자신감은 8문항으로 예시문항은 “나는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이다. 문항들은 6점(1점=전혀 그렇지 않다 ~ 6점=매우 그렇다)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 3. 연구모형



[그림 1] 대학생의 평가염려완벽주의와 실패공포, 학업지연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실패반응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SPSS PROCESS Macro 5.5를 사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둘째, SPSS 22.0을 사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평가염려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진행을 위해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진행할 것이다. 셋째, 조절효과 분석을 위하여 SPSS 22.0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실패공포와 실패반응성,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 후, SPSS Macro를 사용하여 조절효과 유의성을 검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평가염려완벽주의가 실패공포를 통해 학업지연행동에 이르는 경로에 있어, 실패반응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SPSS Macro를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은주 (2006).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선, 최영희, 석분옥, 백근영, 이동귀 (2009).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에 따른 하위집단과 학업지연행동.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23(3), 39-56.
- 김아영 (2002).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15, 157-184
- 김아영, 박인영(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 김영희, 강혜원(2007). 학습된 무기력, 실패내성, 학교학습동기와 학교적응 및 성적의 관계. **청소년보호연구**, 10, 187-216.
- 김은하, 신종호 (2018). 교실목표구조와 피드백 유형에 따른 학업적 실패내성 차이 분석. **교육심리연구**, 32(2), 207-228.
- 김해선 (2016).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9), 107-126.
- 김현진(2013). 사이버 대학생의 환경적 학업방해 요소 및 완벽주의와 학업지연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교육심리연구**, 27(3), 555-573.
- 김현홍, 김진강 (2019).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업성취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환대산업 관련 전공을 하는 지방대학생들을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4(2), 103-126.
- 김현희, 김창대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1(2), 345-361.

- 류지연 (2002). **자기효능감 및 완벽주의 성향과 지연행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서단 (2020). **실패마인드셋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유나, 박만구 (2015). 문제해결에서 생산적 실패의 경험이 초등학생의 수학적 문제해결력 및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 **초등수학교육**, 18(2), 123-139.
- 박혜령, 이종선 (2017).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발표불안 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순차중다매개효과. **Stress**, 25(4), 246-254.
- 안태영 (2020). **대학생의 성장적 실패마인드셋과 그릿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수진, 안주현, 양수진. (2022).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목표인식특성과 실패내성의 관계에서 그릿 (Grit), 실패공포, 숙달접근목표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9(1), 149-168.
- 이경희, 김지연 (2014).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Andragogy Today**, 17(4), 33-57.
- 이미라, 오경자 (2009). 완벽주의 성향과 학습동기 수준이 학업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2), 363-377.
- 이성원, 양난미 (2015).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4), 225-244.
- 이수민, 양난미 (2011).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17-738.
- 임성문 (2006). 각성형과 회피형의 만성적 지연행동측정 Ferrari가 제안한 방법은 타당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91-102.
- 임소영 (2009). **대학생들의 완벽주의적 비합리적 신념, 학업적 지연행동과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장애경, 이지연 (2011).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간의 관계에서 타인에 의한 타당화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3), 881-896.
- 정지유, 김한샘, 양수진 (2022). 실패 마인드셋은 세대 간 전승되는가?: 어머니의 행복감과 개방적 의사소통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3), 419-439.
- 진예민, 배유진, 양수진 (2021). 대학생의 실패에 대한 반응성,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대학생의 행복, 목표인식, 그릿, 연령, 성별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3), 43-65.
- 한영숙 (2011).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4), 277-299.
- 허효선 (2012). **완벽주의와 충동성이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irney ,R. C., Burdick, H., & Teevan, R. C.(1969). *Fear of failure*. NY: Van Nostrand.

- Bong, M., & Skaalvik, E. M. (2003). Academic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How different are they reall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5(1), 1-40.
- Burka, Jane B., & Yuen, Lenora M. (1983). *Procrastination: Why you do it and what to do about it*. Reading, PA: Addison-Wesley.
- Conroy, D. E.(2001).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fear of failure: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PFAI). *Anxiety, Stress and Coping*, 14(4), 431-452.
- Conroy, D. E., Willow, J. P., & Metzler, J. N. (2002). Multidimensional fear of failure measurement: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2), 76-90.
- Dunkley, D. M., & Blankstein, K. R.(2000). Self-critical perfectionism, coping, hassles and current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 713-730.
- Dweck, C. S. (2002). The development of ability conceptions.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57-88.
- Ferrari, J. R. (2001). Procrastination as selfregulation failure of performance: Effects of cognitive load, self-awareness, and time limits on 'Working best under pressur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5), 391-406.
- Flett, G. L., & Hewitt, P. L. (2002).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Washington, D. C.: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rost, R. O., Marten, P .A., Lahart, C., & Rosenblate, R.(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Haimovitz, K., & Dweck, C. S. (2016). What predicts children's fixed and growth intelligence mind-sets? Not their parents' views of intelligence but their parents' views of failure. *Psychological science*, 27(6), 859-869.
- Hayes, N. (2013). *Doing qualitative analysis in psychology*. Psychology Press.
- Kim, A. & Clifford, M . M . (1988). Goal source, goal difficul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as predictors of responses to failur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8(1), 28-43.
- Lay, C. H.(1986). At last, my research article on procrasti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4), 474-495.
- McCown, W., & Robert, R. (1994). *A Study of academic and work-related dysfunctioning relevant to the college version of an indirect measure of impulsive behaviour*. Integra Technical Paper 94-98, Radnor, PA: Integra, Inc.
- Mcgrath, R. G. (1999). Falling Forward: Real Options Reasoning and Entrepreneurial Failur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1), 13-30.
- Mcgregor, H. A., & Elliot, A. J. (2005). The Shame of Failure: Examining the Link Between Fear of Failure and Sha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2), 218-231.



- Rabin, L., Fogel, J., Nutter-Upham, K. (2011). Academic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Self-reported Executive Function.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Neuropsychology*, 33(3), 344-357.
- Rothblum, E. D.(1990). Fear of Failure : The psychodynamic, need achievement, fear of success, and procrastination models. In H. Leitenberg. (Ed.),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 (pp. 497-537). NY: Plenum
- Schraw, G., Wadkins, T., Olafson, L. (2007). Doing the Things We Do: A Grounded Theory of Academic Procrastin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1), 12-25.
- Shepherd, D. A. (2003). Learning from Business Failure: Propositions of Grief Recovery for the Self-Employed.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8(2), 318-328.
- Solomon, Laura J. & Rothblum, Esther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503-509.
- Steel, P. (2007). The Nature of Procrastination: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of Quintessential Self-Regulatory Failure. *Psychological Bulletin*, 133(1), 65-94.
- Sternberg, R. J. (2001). What is the common thread of creativity? Its dialectical relation to intelligence and wisdom. *American Psychologist*, 56(4), 360-362.
- Swinton, O. H. (2010). The effect of effort grading on learning.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9(6), 1176-1182.
- Zimmerman, B. J., & Bandura, A. (1994). Impact of Self-Regulatory Influences on Writing Course Attainmen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1(4), 845-862.

#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학습환경이 학습자의 정서적 사용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문헌분석

Xiang Hongyu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 지도교수 : 류 지 현)

## 요 약

실감미디어는 학습자의 감각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개발한 첨단 매체 이다. 기술적인 발달과 더불어 학습자와 학습내용과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실재감과 가상 객체와의 상호작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현실과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학습 환경은 기술의 매체중심 수업환경과 다르게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영향력은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영역에서는 폭넓게 적용 되고 있다. 학습자의 정서적 경험은 매체 환경에서 발생해서 사용경험의 동기, 감정, 흥미 등의 비인지적 영역을 의미한다. 실감미디어 기반의 학습활동에서 발생하는 정서변화는 인지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런데 실감미디어의 효과성을 다루는 연구들은 대부분 인지적인 영역에서 변화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실감미디어에서 정서적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다.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학습환경에서의 정서적 사용경험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정서적 사용경험의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학습자의 사용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실감미디어, 학습 환경, 정서적 사용경험, XR(Extended Reality)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실감미디어(immersive media)는 몰입감과 실재감을 극대화해 실제 체험감을 제공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매체이다(Lee, 2021). Extended Reality(XR) 기술은 동영상,

사진 등의 정보를 가상 세계와 결합하거나 현실 세계와 중첩해 보여주는 실감미디어의 한 종류이다. 최근 XR에 대한 교육분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상 수업자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이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학습 흥미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Verhey, Haglin, Verhey, & Hartigan, 2020; Wyss, Degonda, Bühner, & Furrer, 2022). XR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혼합현실(Mixed Reality, MR) 등 실감기술(immersive technology)을 활용하는 매체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Chen et al., 2022; Döllinger, Wienrich, & Latoschik, 2021). XR 기술은 사용자와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와 감지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인체의 감각을 확장하여 사용자의 주관적 경험을 개선하므로 정서, 인지 및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Flavián, Ibáñez-Sánchez, & Orús, 2019).

사용경험이란 개인이 기술이나 시스템에 대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감각과 반응을 의미한다.(Kuhar, & Merčun, 2022). 실감미디어 기반의 교육콘텐츠는 학습자의 사용경험을 높여줄 수 있으며, 그 중 정서를 주요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다.(Jokinen, 2015a; Saariluoma, & Jokinen, 2014). 그런데 정서는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Jokinen(2015a)에 의하면, 실감미디어에 대한 정서적 평가는 두 단계로 나뉜다. 첫째는 실감미디어 환경의 구성이 매력적인지, 사람을 즐겁게 하는지 판단에 대한 평가이고, 둘째는 콘텐츠의 지식적인 깊이가 있는지, 자신의 목표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정서적 반응이다. 대다수 학습자가 XR 기반 학습 환경을 사용한 경험이 부족하므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육의 효과와 학습자들의 지속적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urray, & Johnson, 2021).

Jokinen(2015b)제시한 정서적 사용자 경험의 능력-좌절 모델(The competence - frustration model of emotional user experience)은 심리적인 특징이 정서내용으로 이론화되는 개념이다. 정서적 사용자 경험의 능력-좌절 모델은 Santoso와 Schrepp(2019), Sauer, Sonderegger과 Schmutz(2020), Tcha-Tokey, Christmann, Loup-Escande, Loup와 Richir(2018)와 같이 사용자 경험에 중요한 점은 주관적 감각 부분에 있다고 본다. 정서적 사용자 경험의 능력-좌절 모델은 기술을 사용하는 동안의 성공 경험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장애가 있을 때는 좌절, 불안, 고민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인간-기계 상호 작용에서 성공과 실패 이후의 감정 반응이 학습 성과와 사용자 만족도와 정비례하고, 사용자는 자신의 성과를 지식과 기술로 돌리며 자기 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Jokinen, 2015a). Saariluoma와 Jokinen(2014)은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이 사용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게 할 것이며, 불안과 좌절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에서 나온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사용경험에서 정서적인 부분은 매우 중요하며 작업 수행, 교육 효과, 학습자들의 자기 인식 등과 관련성이 있다.

정서적 사용경험과 관련해 VR(Vesisenaho et al., 2019), AR(Harrington, 2020), MR(Allcoat et al., 2021)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지만, 어떤 요인이 학습자의 정서적 사용경험 변화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나 이론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관련 연구를 정리하여 학습자의 사용경험을 정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업전략을 도출하고자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연구문제1: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학습환경에서 정서적 사용경험의 연구 동향과 특성이 어떠한가?

연구문제2: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학습환경에서 긍/부정적인 정서적 사용경험이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3: 실감미디어를 활용한 학습환경에서 정서적 사용경험을 영향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 3. 용어 정의

### 1) 실감미디어

실감미디어는 가상 객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몰입감과 실재감을 높이며, 사용자가 접하는 가상세계가 진짜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기술이다(송진, 2018; Flavián et al., 2019; Lee, 2021). 실감미디어는 XR이라고도 불리며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 AR(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MR(혼합현실, Mixed Reality) 등의 개념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송진, 2018; Chen et al., 2022).

### 2) XR, VR, AR, MR

XR(확장현실, Extended Reality)은 어느 특정 기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AR, VR, MR 등 기술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Chen et al., 2022).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은 화면, 소리 등 요소를 통해 사용자의 뇌를 속여서 사용자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이다(Chen et al., 2022).

AR(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은 이미지, 동영상 등 디지털 정보를 현실 세계에 증강하여 사용자들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술이다. 그러나 추가된 정보는 주변 자연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없으며 사용자와 상호작용도 할 수

없다(Chen et al., 2022).

MR(혼합현실, Mixed Reality)은 가상 세계를 실제 세계와 결합하여 사용자가 가상 객체와 직접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형성하는 기술이다(Kunkel, & Soechtig, 2017).

### 3) 정서적 사용경험

정서적 사용경험은 기술이나 시스템 사용으로 야기되는 감각과 반응이 사용자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Jokinen, 2015b; Saariluoma, & Jokinen, 2014). 기분, 흥미, 동기수준, 감정 등이 이런 정서적 경험에 해당된다. XR환경에서 있을 때 환경 요소의 부피, 비율, 순서, 높이와 환경의 색상, 빛, 소리, 질감 등은 사용자의 정서적 사용경험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ao, & Kim, 2017; Khaleghimoghaddam, Bala, Özmen., & Öztürk, 2022)

## II. 이론적 배경

### 1. XR과 교육

XR은 확장 현실(Extended Reality)이고, 다양한 유형의 기술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송진, 2018; Chen et al., 2022). XR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념이 AR(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과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이다. MR은 AR과 같이 가상 객체와 실제 상황을 결합하기 때문에 상호작용 가능한 AR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2016년 HoloLens 장비의 등장으로 MR이라는 용어가 별도로 분리되었다. Kunkel과 Soechtig(2017)는 MR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매끄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환경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MR환경에서는 디지털 자료와 물리적 객체가 공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AR이 단순히 가상자료를 현실 세계에 중첩하는 것과는 다르다. Chen 등(2022)은 XR이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XR 기반 경험은 컴퓨터가 디지털 자료를 중첩하여 사용자의 현실에 대한 감지를 증강한 다음 시각적 및 음성 장비를 통해 사용자를 다른 장소와 시간으로 옮기는 것이다. XR의 공통점은 몰입감과 연속성으로, 이는 교육 분야에서 XR을 사용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제공한다(Alam, 2021). XR(VR, AR, MR)은 교사와 학생이 수업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수업 내용을 제시 및 전달하고 학습

경험을 창출하여 독특한 교수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Rauschnabel, Felix, Hinsch, Shahab, & Alt, 2022). VR은 사용자를 데리고 현실세계에 나간 후 디지털 기술로 구축된 가상환경에 들어가도록 하고, 소리와 화면을 통해 사용자가 그 가상공간을 실제처럼 느끼게 하고 몰입하게 하는 것이다(Carl, 2018). 그러나 몸에는 이동과 위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른 기관이 있으므로 VR 기기 사용 시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는 사용자도 있다. 게다가 VR 기기의 가격도 대규모 사용을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AR이 VR과 다른 점은 현실 기반이다(Kurilovas, 2016). AR은 실제 환경에 가상의 정보를 중첩시켜 현실 세계를 증강한다. 사람들이 AR을 통해 현실 세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Carl, 2018). 중첩된 가상 정보는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사람과 상호 작용할 수도 없다. AR의 장점은 특정 기기가 필요 없고 핸드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MR은 기기의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주변 환경을 스캔한 후 스캔한 결과를 가상세계와 융합해 사용자에게 제시한다(유명현, 김재현, 구요한, 송지훈, 2018). 따라서 MR은 VR의 실시간 상호작용과 AR의 현실 세계와의 결합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VR과 같이 특별한 기기가 필요하므로 발전이 제한된다. XR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므로 수업 과정에 모듈화 및 정렬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XR은 교수자가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넘어 자신의 요구, 자료의 배경, 데이터의 규모에 따라 학습 환경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Rauschnabel et al., 2022).

## 2. 정서적 사용경험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탑재한 기기는 일상생활의 일부이다. 사람들은 기술을 사용하는 목표가 다르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 다르므로 기술에 대한 평가도 다르다(Jokinen, 2015b). 따라서 기술의 평가는 기술 자체에서 출발하지 않고 사용되는 과정 중 생기는 사용 경험에서 반응해야 한다.

사용경험은 사용자의 심리적인 수준에서 기술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이다. Bargas-Avila와 Hornbæk(2011)는 사용자의 경험을 평가할 때 정서(emotion), 즐거움(enjoyment), 미학(aesthetics), 향락품질(hedonic quality), 참여(engagement), 동기(motivation), 증강(enhancement)과 좌절감(frustration) 8가지 측면에서 평가한다. 위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사용경험에서 정서를 가장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서적 사용경험은 디자인적 관점에서 말하는 개념이지만, 정서는 심리적 사고에서 핵심을 차지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인간-기계 상호 작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사용자 심리 이론이 있다(Saariluoma, & Jokinen, 2014). 사용자 심리는 사용자를 감정 체험자로 간주하고, 동시에 설계와 해결책을 찾을 때 사용자의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정서는 이성의 대립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의사 결정과 핵심 부분을 학습하는 심리적 차원의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Saariluoma, & Jokinen, 2014). 심리학 분야에서 감정은 적어도 두 가지 심리적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인지, 감각과 정보 기억, 둘째는 공간, 물체, 시스템 등 인지할 수 있는 것과 인지할 수 없는 많은 정보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다.

### III. 연구방법

이 연구는 PRISMA 2020 방법(Page et al., 2021)의 지침을 참고하여 수행할 것이고, 국제 체계적 문헌고찰 프로토콜 등록 기구인 PROSPERO에 프로토콜을 등록할 예정이다.

PRISMA는 The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이며, PRISMA 2020 방법은 (1) 제목에서 체계적 문헌고찰로 결정, (2) 연구의 목표 및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 (3) 선정 및 배제 기준을 설명, (4) 연구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정보의 출처와 마지막 검색 날짜를 지정, (5) 통합 결과 제시 방법을 설명, (6) 선정 연구의 총수를 제공하며 연구의 특성을 요약, (7) 최종결과와의 한계를 제시, (8) 결과 및 중요 의의에 대한 일반해석 제공의 순서를 지닌다.

#### 1. 문헌 선정기준과 배제기준

##### 1) 선정기준

MR의 대표 기기인 홀로렌즈의 사용 연령이 13세 이상이고 대학 교육은 보통 24세 이전에 끝나기 때문에 13세부터 24세까지의 대상으로 한 연구를 선정한다. 첫째: 연구대상자는 13세부터 24세까지(중학교부터 대학까지)이다. 둘째: VR, AR과 MR 중 하나 이상의 기술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셋째: 연구는 영어, 한국어로 투고되었다. 넷째: 년도는 2015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에 발행된 논문만을 포함한다.

##### 2) 배제기준

첫째 : 13~24세 연령 이외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VR, AR과 MR 기술은

연구에 사용되지 않았다. 셋째: 비영어와 비한국어로 투고된 연구다. 넷째: 발행 시간은 2015년 1월 1일 이전이다. 다섯째: 문헌고찰유형 연구이다.

## 2. 문헌 검색

### 1) 국내 논문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한국학술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이용한다. 검색 시 키워드 그룹1(XR, 확장현실,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MR, 혼합현실, HoloLens, 홀로렌즈)와 키워드 그룹2(정서, 동기, 흥미, 좌절)를 조합하여 검색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과 연구의 참고문헌을 수동으로 검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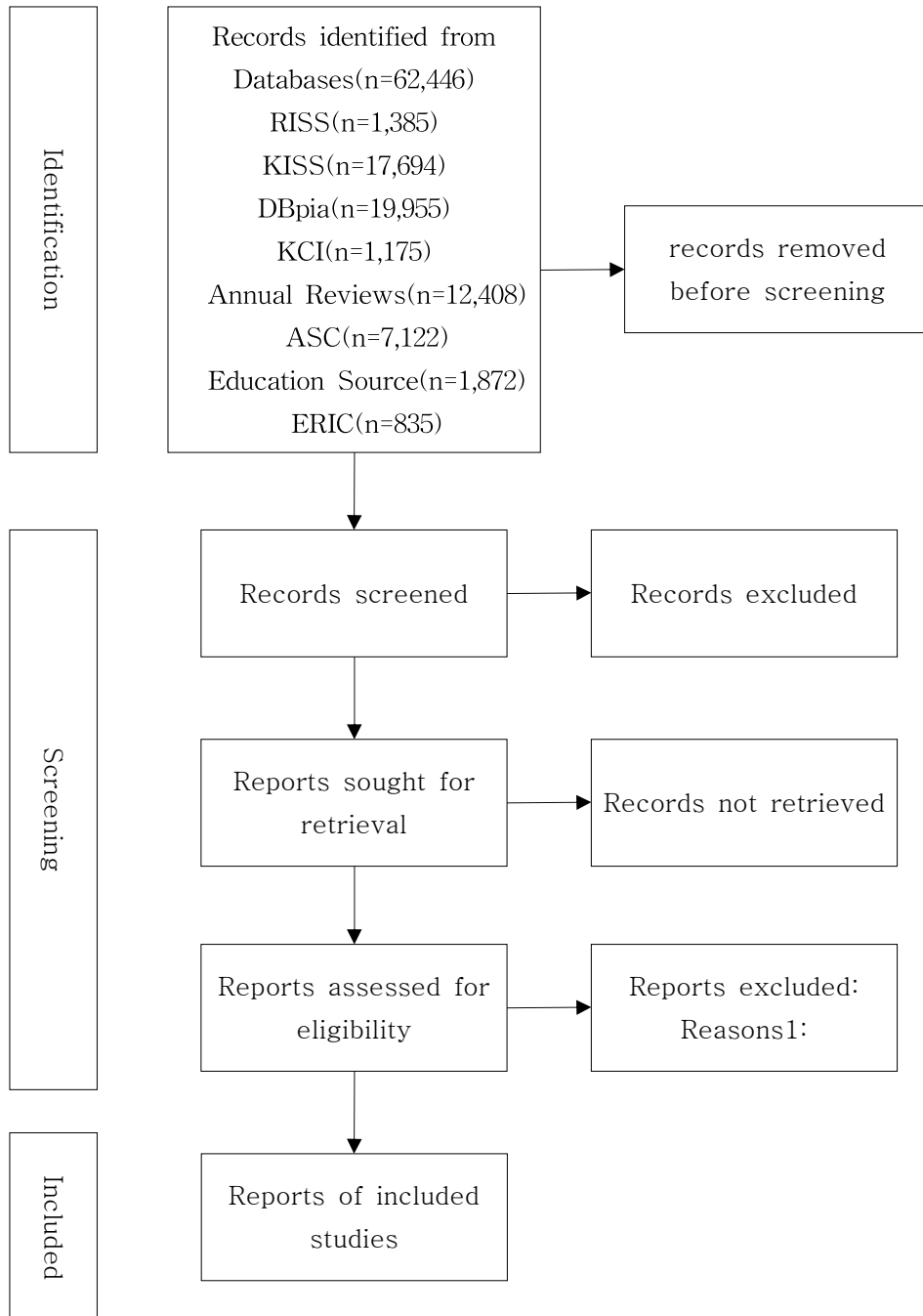
### 2) 해외 논문

해외 데이터베이스인 Annual Reviews, Academic Search Complete(ASC), Education Source,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ERIC)를 이용한다. 검색 시 키워드 그룹1(XR, Extended Reality, VR, Virtual Reality, AR, Augmented Reality, MR, Mixed Reality, HoloLens)과 키워드 그룹2(user psychology, user experience, emotional use experience)를 조합하여 검색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과 연구의 참고문헌을 수동으로 검색한다.

## 3. 문헌 선정

독립된 연구자는 문헌검색 전략으로 얻은 문헌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을 토대로 관련성이 없는 문헌들을 1차 배제한다. 연구자는 1차 배제 후 남은 문헌에 대해 전문을 확보하여 선정 기준과 맞지 않는 논문들을 배제한다. 두 번 배제된 후 남은 문헌은 선택된 문헌이다.





\*<https://www.prisma-statement.org/PRISMAStatement/FlowDiagram>

#### 4. 추출항목

선정된 문헌을 분류 정리하여 문헌의 저자, 출판연도, 언어, 연구유형, 실험유형, 대상 연령, 표본크기, 독립변수, 종속변수, 실험 결과를 귀납하여 Excel 표로 정리한다.

#### 5. 연구 특성 정리

선정된 문헌을 인용하여 특징을 소개하고, 특징을 통계하여 선정된 논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 1) 연도별 주제 트렌드
- 2) 적용 대상자 분포
- 3) 적용 학교급 분포
- 4) 적용 교과목 분포
- 5) 연구설계 분포
- 5) 적용 데이터 분석 방법

#### 6. 연구 결과 정리 및 해석

### IV. 연구결과 분석

### V. 요약 및 결론

### 참 고 문 헌

송진. (2018). 실감미디어와 교육콘텐츠의 교차로 탐색. *미디어와 교육*, 8(1), 24-48.

유명현, 김재현, 구요한, & 송지훈. (2018). VR, AR, MR 기반 학습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4(3), 459-488.

Alam, A. (2021). Designing XR into Higher Education using Immersive Learning Environments (ILEs) and Hybrid Education for Innovation in HEIs to attract UN's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Initiative. *202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s in Computing, Communication, and Control (ICAC3)*, 1-9.

- Allcoat, D., Hatchard, T., Azmat, F., Stansfield, K., Watson, D., & von Mühlenen, A. (2021).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Learning experience in virtual and mixed realities.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59(5), 795–816.
- Bargas-Avila, J. A., & Hornbæk, K. (2011). Old wine in new bottles or novel challenges: a critical analysis of empirical studies of user experience. *Proceedings of the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2689–2698.
- Carl, D. R. (2018). The shifting realities of performance improvement: VR, AR, MR. *Performance Improvement*, 57(4), 6–9.
- Chen, Y., Zhou, Z., Cao, M., Liu, M., Lin, Z., ... & Xiong, P. (2022). Extended Reality (XR) and Telehealth Interventions for Children or Adolesc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Systematic Review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138, 104683.
- Cho, M. E., & Kim, M. J. (2017). Measurement of user emotion and experience in interaction with space.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16(1), 99–106.
- Döllinger, N., Wienrich, C., & Latoschik, M. E. (2021).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immersive technologies for mindfulness meditation: a systematic review. *Frontiers in Virtual Reality*, 2, 644683.
- Doran, J. P. (2021). *Extended reality (XR) based smart pedagogy: Data analytics driven examination of smart technology application to student success* [Doctoral dissertation, Bradley University].
- Flavián, C., Ibáñez-Sánchez, S., & Orús, C. (2019). The impact of virtual, augmented and mixed reality technologies on the customer experienc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00, 547–560.
- Harrington, M. C. (2020). Connecting user experience to learning in an evaluation of an immersive, interactive, multimodal augmented reality virtual diorama in a natural history museum & the importance of story. *2020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mmersive Learning Research Network (iLRN)*, 70–78.
- Jokinen, J. P. (2015a). Emotional user experience: Traits, events, an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76, 67–77.

- Jokinen, J. P. (2015b). User psychology of emotional user experience. *Proceedings of the 2015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2221–2230.
- Khaleghimoghaddam, N., Bala, H. A., Özmen, G., & Öztürk, Ş. (2022). Neuroscience and architecture: What does the brain tell to an emotional experience of architecture via a functional MR study?. *Frontiers of Architectural Research*, 11(5), 877–890.
- Kuhar, M., & Merčun, T. (2022). Exploring user experience in digital libraries through questionnaire and eye-tracking data.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44(3), 101175.
- Kunkel, N., & Soechtig, S. (2017). *Mixed reality: Experiences get more intuitive, immersive and empowering*. Deloitte University Press.
- Kurilovas, E. (2016). Evaluation of quality and personalisation of VR/AR/MR learning systems.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35(11), 998–1007.
- Lee, K. A. (2021). A Study on Immersive Media Technology in the Metaverse World.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6(9), 73–79.
- Murray, J. T., & Johnson, E. K. (2021). XR content authoring challenges: the creator–developer divide. In Joshua A. Fisher(Eds.), *Augmented and Mixed Reality for Communities*(pp. 245–264). CRC Press.
- Page, M. J., McKenzie, J. E., Bossuyt, P. M., Boutron, I., Hoffmann, T. C., ... & Moher, D. (2021). The PRISMA 2020 statement: an updated guideline for reporting systematic reviews. *Systematic reviews*, 10(1), 1–11.
- Rauschnabel, P. A., Felix, R., Hinsch, C., Shahab, H., & Alt, F. (2022). What is XR? Towards a framework for augmented and virtual realit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33, 107289.
- Saariluoma, P., & Jokinen, J. P. (2014). Emotional dimensions of user experience: a user psychologic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30(4), 303–320.
- Santoso, H. B., & Schrepp, M. (2019). The impact of culture and product on the subjective importance of user experience aspects. *Heliyon*, 5(9), e02434.
- Sauer, J., Sonderegger, A., & Schmutz, S. (2020). Usability, user experience and accessibility: towards an integrative model. *Ergonomics*, 63(10), 1207–1220.
- Tcha-Tokey, K., Christmann, O., Loup-Escande, E., Loup, G., & Richir, S. (2018).

Towards a model of user experience in immersive virtual environments. *Advances in Human-Computer Interaction*, 2018.

- Verhey, J. T., Haglin, J. M., Verhey, E. M., & Hartigan, D. E. (2020). Virtual, augmented, and mixed reality applications in orthopedic surger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Robotics and Computer Assisted Surgery*, 16(2), e2067.
- Vesisenaho, M., Juntunen, M., Häkkinen, P., Pöysä-Tarhonen, J., Fagerlund, J., ... & Parviainen, T. (2019). Virtual reality in education: Focus on the role of emotions and physiological reactivity. *Journal of Virtual Worlds Research*, 12(1).
- Wyss, C., Degonda, A., Bühner, W., & Furrer, F. (2022). The Impact of Student Characteristics for Working with AR Technologies in Higher Education – Findings from an Exploratory Study with Microsoft HoloLens. *Information*, 13(3), 112.

# The Effect of Learning Environment Using Immersive Media on Learners' Emotional User Experiences: A Systematic Review

Hongyu Xia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al Technology/ Adviser: Jeeheon Ryu

## Abstract

Immersive media is cutting-edge media developed to develop a learners' sensory experienc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t can facilitate the interaction between learners and learning content. Therefore, it has prese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teracting with virtual objects. Through digital technology, users feel that they are in a world different from reality. The learning environment using immersive media has a great impact on learners, which is different from technology-focused media-centric teaching. This influence is not only effective in cognition, but also widely applicable in emotion. The learners' emotional use experience refers to the non-cognitive domains when using experience in media environment, such as motivation, emotion and interest. Emotional changes in immersive media based learning activities are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cognition and behavior. However, most of the research involving the effects of immersive media has focused on grasping changes or relationships in the cognitive domain. Therefore, although the influence on the emotional domain in immersive media is not small, it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 of emotional user experience in the learning environment using immersive media, explore the influencing factors of emotional user experience, and provide strategies for improving learners' user experience.

**Keyword:** *Immersive Media, Learning Environment, Emotional User Experience, XR(Extended Reality)*